

탄소중립 도시숲 확충 '박차'

강임준 군산시장, 산림청 방문해 도심 유휴지 활용 녹지공간 확충 예산지원 건의
군산철길숲 확대조성 사업·창성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강임준 군산시장은 22일 산림청을 방문,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한 사업은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창성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총 2건이다.

'군산철길숲 확대 조성'은 현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기존 철길숲의 연장 구간으로, 사정삼거리에서 구개정역까지 2.7km(약 5ha)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사업을 통해 편백나무숲, 가로수길,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당 구간은 전북대학교 병원 예정지와 인근 상권과 연계되어 있다. 시는 도시의 기후 대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창성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지역 내 1.2ha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다층 구조의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산책로와 편익 시설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재해 발생 위험은 높지만 생활권 녹지는 매우 부족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22일 산림청을 방문,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곳이다. 따라서 녹지복지 실현과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시급성이 크다.

강 시장은 "도시숲은 기후변화 대응·복지환경 개선·경제활력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라며, "산림청의 정책적 뒷받침과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산림청 협의에 이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등 앞으로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단기적인 예산 확보를 넘어 중장기적 국책사업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국책사업발굴단 TF'를 구성·운영하며 '2027년 국가예산 사업' 선제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여러 부서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도시·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익산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벤처캠퍼스 중심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거점 조성 위한 전략 수립

익산시가 농업과 식품, 첨단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거점 구축을 요청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익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해 대응방향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연말 준공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도내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을 연결하고 거점별 유사기능에 대한 연계를 활성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복합형 벤처·창업, 전문인력 교육, 첨단소재 전주 기 지원 기능 등을 확장해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한 성과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그린바이오 혁신 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방향성과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는 전국 5개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산업 거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장구 전방을 아우르는 그린바이오 산업·지역별 특화 발전 컨트롤타워다. 자세한 구성 요소와 운영 방향 등은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최종 보고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장구 지정' 공모에 도전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장구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익산을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식물성 대체단백질 산업화 추진

하영콩·대단콩 도입... 관내 콩 재배 농가에 공급 확대

군산시가 식물성 대체단백질 산업화 추진을 위해 가공용 특수콩 품종 도입 및 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품종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하영콩' 품종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단콩' 품종이다. 시는 두 품종을 도입해 관내 콩 재배 농가에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하영콩'은 일반적으로 콩의 비린내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품종이다. 가공적성과 맛도 기존 품종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특수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더플랜트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다.

함께 도입되는 '대단콩' 역시 고단백 국산 콩 품종으로, 두유 및 고품질 단백질 가공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1일 가공용 콩 산업 추진의 첫 시작으로 군산시 농업인화관에서 (주)더플랜트(대표 양재식)와 '하영콩'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가 실시자로서 참



여하며,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더플랜트와 (주)더플랜트가 계약에 나선다.

또한 계약을 통해 신품종 '하영콩'에 대한 재배·가공·판매 전반의 권리를 확보했으며, 특히 농가가 직접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재실시권 부여와 가공 및 판매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역 내 농식품 가공업체들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황관선 군산농기센터 소장은 "하영콩과 대단콩은 일반 대두콩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 콩 재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도입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익산시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익산시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와 함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22일 개최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역의 역할을 집중해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서고자, 지난달부터 지역 자원봉사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 내 24개 자원봉사단체 소속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원단의 역할을 공유하고, 자원봉사자 결의문을 낭독하며 재난 대응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발대식에 이어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재난 상황에 필요한 생존 기술 중심의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국공립 익산자이어린이집' 개원

영아반·시간연장반 운영·맞춤형 전문 보육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고품질 보육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22일 마동 익산자이그랜드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신규 설치한 '국공립 익산자이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위탁사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익산자이어린이집에 1억7,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지원했다.

특히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고려해 정원의 70%까지 입주민이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취약보육 강화를 위해 영아반과 시간연장반을 운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익산자이어린이집은 지상 1층, 총 면적 305㎡ 규모로 조성됐다. 보육실 5개, 유희실 1개, 실외 놀이시설을 갖추고, 정원은 52명이다.

익산자이어린이집을 포함해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확대됐다. 하반기에도 중흥S클래스와 부송데시앙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로 개원할 예정으로, 공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

